

신장이식후 공여자의 신기능에 대한 후향적 연구

김수현 · 윤혜은 · 김용균 · 최범순 · 양철우 · 김용수 · 김석영 · 최의진 · 장윤식 · 방병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Retrospective Analysis of Renal Function in Kidney Transplant Donors

Su Hyun Kim, Hye Eun Yoon, Yong Kyun Kim, Bum Soon Choi, Chul Woo Yang
Yong Soo Kim, Suk Young Kim, Euy Jin Choi, Yoon Sik Chang, Byung Kee B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생체신장이식에서 공여자의 신장기능은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기적인 추적검사결과 말기신부전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신장이식수술후 공여자의 신기능에 대한 보고가 미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 시행한 생체이식 후 공여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인 차트조사를 통해 혈청 크레아티닌치, 사구체여과율, 요단백 및 혈압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1년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는 152명이었다. 남성이 73명 (48%), 평균연령은 44 ± 14 세 (21-87)였고 평균 추적기간은 2.5년 (1-21)였다. 혈청크레아티닌은 평균 1.17 ± 0.75 mg/dL (0.57-10)였고, MDRD로 계산된 사구체여과율은 평균 69 ± 13 mL/min이었다. 만성신장병의 단계별분류로는 stage 2가 112명 (74%)로 가장 많았고 stage 3이 33명 (21%), stage 1이 6명 (4%)순이었다. 고혈압은 9명 (6%)에서 발생하였고, 요검사에서 단백뇨 양성은 3명 (2%)이었다. 신공여자 중 1명에서 말기신질환으로 이행하여 복막투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1.5 mg/dL이상인 환자는 6명 (3.9%)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신장이식후 공여자의 신기능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